

상생협력 출발은 '배려'

우리 속담 중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다.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는 윈윈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청,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매년 일선에서 공헌한 실무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동행상은 이제 110명의 숨은 공로자를 찾은 셈이다.

상생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상대를 배려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수상한 공적자들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원가절감이나 신기술 개발 등 기업경영 혁신을 위한 고민을 통해 협력 필요성을 깨닫고,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견해차를 극복할 때 비로소 성공 결실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의 결실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조그만 상으로 공로를 갈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 여겨진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 시장개방 압력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날로 다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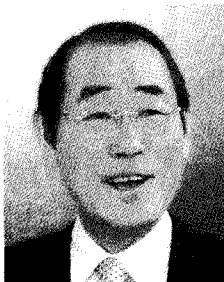
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힘들게 됐다.

이러한 때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우리 기업들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완제품을 생산하면 그 혜택이 다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선순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 관계에는 가히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정부의 제도 마련,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대기업들의 협력사 지원이 확대되고 공정거래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초일류 1등 제품만 살아남는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는 국내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불과하며 우리 중소기업은 아직 독자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이 바로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자기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재단은 앞으로도 모기업의 자발적 의지를 촉발시키고 협력 주체를 30대 대기업에서 300대 대기업으로, 또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시각차를 좁혀 자율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구호가 아닌 실천이 따라야만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자적 인식을 갖고 협력하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윤중웅 회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